

동학의 창시자 수운(水雲) 최제우의 삶과 사상

“모심,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함”

‘믿음’의 종교가 아닌 ‘함’의 종교 동학

이미 삼국시대에 들어와 토착화 과정을 오랫동안 거친 불교와 근대 이후에 전래되어 급격하게 교세를 확장한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가 한국인이 주로 믿는 2대 종교로 굳게 터를 잡고 있다. 종교라고 규정하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유교(유학) 역시 한국인의 심성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종교적 지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종교로서의 동학, 아니 천도교를 믿는 신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천도교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겪던 시기에 독립운동의 동력으로, 개혁의 선구로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진 박해를 당했다.

그렇다면 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은 ‘지금-여기’와 어울리지 않는 옛 사상, 한물간 종교에 불과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천도교의 원형인 동학과 동학의 중심에 있는 수운의 사상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정신적 빈곤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새로운 방향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천도교의 교리보다는 수운 최제우의 사상 그 자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수운의 사상으로부터 무엇을 성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짧은 글로 수운의 진면목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클 테지만, 수운의 마음속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동학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동학을 ‘함다’라는 표현을 소개하고 싶다. 동학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천의 대상이라는 점을 웅변하는 표현이다. ‘믿는다’는 표현에는 믿음의 대상인 신이나 교리 등이 주체가 되고 믿는 사람은 객체가 되기 쉽다. 이는 최악의 경우 종교를 믿는 자가 그 종교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함’의 종교인 동학은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신념체계, 지식체계에서의 의존을 최소화하고 동학의 본체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함’의 종교로서의 동학이다. 이때 ‘함’의 주체와 대상은 모두 사람이다. 실제로 수운은 “사인여사천(事人如事天)”, 즉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하라”고 했다. ‘하다’라는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대상)는 모두 사람이며 ‘하다’는 구체적으로 ‘섬기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섬긴다’는 게 어찌 보면 동학의 핵심이다. 이토록 당연하고 자명한 명제가 뒷전으로 밀린 우리 사회에서 갑질과 같은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억측인가?

수운 최제우의 삶과 당시의 조선

19세기 중엽 조선은 정치적 문란과 사회 기반의 붕괴 그리고 외세의 침입이라는 총체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상황은 한 마디로 내우외환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은 통상수교를 요구하며 조선의 바다를 침략하였다. 이양선의 출몰은 이 시기에 외세의 접근을 요약하는 말이다. 16세기에 사림이 집권하면서 성리학은 점차 권력 유지를 위한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변질되면서 이기론(理氣論)을 중심으로 한 논쟁에 빠져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 이르자 사상적 침체와 함께 사회 기틀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배층은 백성들의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학이라고 부르는 개혁적 담론은 이를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갖지 못했다. 또한 실학은 그 자체로서 성리학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일컬어지는 혼란과 피폐, 수탈 속에서 병들어갔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을 말하는데, 전정은 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말하며, 군정은 군역 대신 납부하는 면포를 말한다. 환정은 쌀을 빌려주고 이를 추수 때 갚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정은 지주가 소작농에게 떠넘기는 세금과 각종 부가세 등으로 문란해졌다. 군정 역시 면포를 징수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환정은 사실상 국가

가 백성을 상대로 하는 고리대금업으로 둔갑했다. 처음에 도망 등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백성들은 점차 폭력적으로 투쟁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민란이 일어났다. 빈사상태에 이른 백성들은 민간신앙에 의지하거나 천주교에 입교하며 정신적 공허감을 채우려 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수운은 1824년 영남 일대의 명망 있는 유학자였던 근암 최옥과 그의 세 번째 부인인 한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수운은 근암이 63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부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어머니가 재가녀(再嫁女)였기에 그의 사회적 위치는 서자와 같아서 과거 시험 응시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수운이 17세 되던 해 근암이 죽고, 화재로 그나마 남은 가산마저 잃게 되자 수운은 삼 년 상을 마친 후 장삿길에 나섰다. 그는 아버지로 부터 글만 배웠을 뿐 농사는 지을 줄 몰랐기에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었다. 수운은 무예를 익히기도 했지만 그 역시 그만두었다. 무예를 익혀도 재가녀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는 출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약 십 년 동안 수운은 전국 각지를 떠돌며 방랑을 했다. 수운이 장사를 다니던 1844년부터 1854년까지 조선은 괴질이 나돌고, 백성들은 가난과 허기에 시달리며, 관리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 나라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다. 수운은 이러한 현실을



직접 보며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몸소 느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 도인을 찾기도 하고, 명산에 들어가 홀로 수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수운은 결국 서른한 살이 되던 해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경주에서는 도저히 삶을 도모할 수 없었던 수운은 곧 가족을 이끌고 처가 가 있는 울산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생업은 실패했고, 몇 차례의 입산수행(入山修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59년 수운은 다시 고향인 경주 가정리로 돌아와 도연(道彦)이란 자(字)를 성묵(性默)으로, 제선(濟宣)이라는 어릴 적 이름을 제우(濟愚)로 고치고, 호를 수운(水雲)이라고 하며 “도의 기운을 길이 보존하면 사특한 기운이 침입하지 못한다. 도를 얻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돌아가 어울리지 않으리라.”는 시를 써 붙인 뒤 다시 수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마침내 ‘상제’를 만나게 되는 종교체험을 했다. 그 후 일년간의 수련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자 수운은 포교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와 성리학 윤리와 충돌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서학으로 매도되며, 보수적인 영남 유림들로부터 모함과 배척을 받았다. 수운은 그들의 탄압을 피해 전라도 남원으로 피신한 후 그곳에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했다. 이듬해 경주로 돌아온 수운은 본격적으로 포교를 시작하고, 종교공동체인 접(接)을 조직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다시 “서학을 개두환명(改頭幻名)한 것”이라는 모함을 받았고, 유림들은 동학 배척 운동을 벌이며 수운을 관에 고발했다. 결국 1863년 12월에 체포된 수운은 이듬해인 1864년 3월에 참수당했다.

수운의 사상

수운이 남긴 여러 편의 글은 그의 순도 이후 교통을 이어받은 해월 최시형에 의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한문체로 된 『동경대전』은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과 「주문」, 「축문」, 「탄도유심급」, 「필법」, 「팔절」, 「좌잡」 그리고 「입춘시」, 「절구」, 「강시」, 「화결시」, 「결」, 「우음」, 「제서」, 「영소」, 「유고음」과 같은 시문(詩文)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운의 사상이 압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비해 한글 가사체로 된 『용담유사』는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 「몽중노소문답가」, 「도덕가」, 「흥비가」와 「검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다. 이 글들은 득도 직후인 1860년 4월부터 체포되기 직전인 1863년 11월 사이에 산발적으로 저술되었다. 그 내용과 시기를 살펴보면 각각의 글들은 일관된 목적 아래 쓰인 것이 아니라 수운이 처했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

때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시천주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 저술들의 내용을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신년 득도 직후 수운은 가장 먼저 『용담가』를 저술했다. 풍수설을 빌어 자신의 고향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용담가』에서 그는 종교체험의 감동과 그로 인한 자긍심을 표현했다. 그 후 약 일 년간 수련을 계속하며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얻은 후 『포덕문』과 『안심가』를 저술했다. 『포덕문』에서는 우주의 이법과 득도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혼란스러운 세상을 개탄하며 자신의 가르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안심가』에서는 최초의 포교 대상이었던 부인의 노고를 위로하며 서학으로 오해받는 처지에 대해 부인과 집안 아녀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또한 왜적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며 자신이 한울님으로부터 나라의 운수를 보전할 명을 받았음을 역설했다.

그 후 영남 유림들의 탄압이 심해지자 1861년 11월 전북 남원의 은적암으로 도피하고, 그곳에서 『교훈가』, 『논학문』, 『도수사』, 『권학가』 등을 연달아 저술하며 무극대도(無極大道)의 체계와 핵심을 정리했다.

『교훈가』에서 수운은 자녀와 조카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을 빌려 득도 전후의 과정과 어려움을 언급하며 수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논학문』에서는 서학을 비판하고, 자신의 도를 서학이 아닌 동학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문의 뜻을 풀이하며 시천주 사상의 이론적 정립을 시도했다. 『도수사』에서는 고향에 두고 온 제자들의 성급한 태도를 염려하며 올바른 수련을 당부했다. 『권학가』에서는 고향을 떠나온 자신의 처지와 시운(時運)이 다한 세상을 개탄하는 한편, 윤회시운(輪回時運)에 의해 다시 성운(盛運)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통해 순환론적 역사의를 드러냈다.

은적암에서 저술된 경전을 살펴보면, 수운의 사상이 이 시기에 이르러 보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런 기별 없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제자들에 대한 애정과 염려 그리고 각자위심(各自爲心)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번민과 고뇌 속에서 수운은 ‘한울님을 섬기라’는 시천주(侍天主), ‘함께 한 몸으로 돌아가자’는 동귀일체(同歸一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 등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구체화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것은 귀향 후에도 계속되었다.

1862년 3월경 경주로 돌아온 수운은 1863년 12월 체포되기 직전까지 『수덕문』, 『몽중노소문답가』, 『도덕가』, 『흥비가』, 『불연기연』을 저술했다. 먼저 『수덕문』에서는 득도과정과 함께 수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 즉 성, 경, 신에 대해 설명했다. 『용담유사』에 수록된 글 중



동경대전

다소 특이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몽중노소문답가』에서는 당시 유행한 참위설과 주술 신앙에 대해 비판했다. 『도덕가』에서 역시 기복적 민간신앙을 비판하는 한편, 올바른 수도의 자세로 수심정기와 같은 태도를 강조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선입견 속에 있는 동학에 대한 생각 중에는 틀린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적암 시기 이후에 쓰인 경전을 보면, 수운이 무극대도에 대한 해명이나 주문에 대한 해석보다는 종교적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은적암 시기 교학을 완성한 수운이 경주로 돌아온 이후에는 이미 확립된 교세(敎勢)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863년에 이르러 동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수운은 해월 최시형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흥비가』와 『불연기연』을 저술했다. 수운은 『흥비가』에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과 도(道)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일깨우는 한편,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신의 사상을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저서인 『불연기연』에서는 『흥비가』에서 언급한 ‘불연기연’, 즉 시천주 사상의 인식론적 근거를 정리했다.

수운의 사상은 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완성된 것은 교학 정립기인 은적암 시기였다. 이는 동학의 요체를 담고 있는 『권학가』와 『논학문』에서 드러난다. 수운은 『논학문』에서 자신의 사상을 ‘동학’으로 규정하고 주문 스물한 자를 풀이했다. 그리고 만권시서(萬卷詩書)보다 주문 열세 자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낫다고 하며 그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임을 역설했다. 주문은 곧 수운 사상의 근간인 ‘시천주’였다.

시(侍)라는 것은 안에 신령(神靈)이 있고, 밖에 기화(氣化)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주(主)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다. 수운은 천(天)을 해석하지 않았다. 다만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기는’ 하늘(天主)을 모시는 것(侍)이라고 설명했다. 하늘을 존칭해서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언뜻 서학의 신관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천주’라는 개념의 유사성을 제외하면 서학의 신관과 동학의 신관은 본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서학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신관, 즉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 인격신인 동시에 절대적 선(善)으로서의 신을 표명했다. 동학 역시 타자로서의 신을 상정했지만, 그 신은 절대성을 띠지 않았다[吾心卽汝心(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동학의 신은 귀신(鬼神)이며 천지(天地)인 동시에 음양(陰陽)이었다. 즉 인격신, 자연 그 자체, 자연의 섭리를 동시에 의미한 것이다. 또한 [지공무사(至公無私),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다]하고 [불택선악(不擇善惡), 선악을 택하지 않는다]한 신이었다. 즉, 그리스도교 신관의 근본적인 문제인 신정론(神正論) 자체가 동학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 그것은 동학의 신관이 서학, 즉 19세기 조선에 전해졌던 그리스도교와는 그 토대를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학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동학은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 성립된 일종의 대항 이데올로기라는 견해가 있다. 물론 수운이 서학을 깊이 의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운은 서학이 지닌 근대성과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제국주의적이고 침략적 본질을 극복함으로써 조선에 알맞은 사상을 세우는 일을 소망하였다. 또 동학은 기존의 유불선 삼교에서 장점만 따온 혼합 종교이지 독창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는 편견이 있다. 수운은 삼교뿐만 아니라 서학도 포함하며 당시의 민간신앙까지 두루 포괄하였다. 그러나 수운의 포함은 물리적인 단순한 포함이 아니라 만나서 변화시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즉 접화군생(接化群生)의 포함이다. 즉 생명존중이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입부에서 말한 것처럼 동학은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와는 결이 다르다. 동학을 ‘믿는다’는 표현보다 동학을 ‘하다’라는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다.

수운의 사상, 동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삿된 가르침으로 정사를 어지럽혔다는 좌도난정(左道亂政)의 죄목으로 41세에 참수를 당한 수운 최제우의 사상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 수운의 사상과 동학은 공부할수록 심오하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모심(侍)’이라고 생각한다. 모

심의 대상은 먼저 하늘이다. 하늘은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자인 인격신이 아니라 순리나 섭리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즉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모심의 출발이다. 대자연 앞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미해진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이 자연 앞에 겸손해지면 그때 비로소 다른 인간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여 빛이 바랜 감이 있는 소통이나 공감도 동학이 말하는 모심이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개념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진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 이는 소통과 공감의 기본 전제이다. 이 전제가 충족될 때 모심은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재벌의 갑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 심화되고 있는 남녀의 갈등, 만성적인 과열된 입시 경쟁 등이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월호 참사와 4대강 비리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같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리고 자연을 그 고귀한 가치에 걸맞게 대하지 않은 것이다.

19세기 수운은 가난하고 병든 조선사회를 보았다. 수운이 21세기의 한국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할까? 아마도 수운은 풍요로운 사회 이면의 정신적 피폐와 고갈에 주목할 것 같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은 그때와 같을 것이다. ☞

“하늘을 모시듯 서로를 모셔라.”



수운 최제우 유허지